전주형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시, 성과 공유 · 사업 발표회… 노인 삶 만족도 향상 · 의료비 절감 효과 입증 '고위험군 중심 통합지원 강화'

전주시가 노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해 한층 강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2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전주형 통합돌봄 2022년 성과 공유 및 2023년 사업 발표회'를 개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이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난 선도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도 보건·의료 분야가 더욱 강화된 고위험군 중심의 통합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재택의료센터와 전주시 건강의료 안전망,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및 치매관리 서비스를 보다 체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돌봄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75세 도래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석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지난해 전주형 통합돌봄사업이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관계, 삶의 질 영역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경우도 대상자의 참여 만족도와 활력, 삶의 만족도, 우울감, 사회활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도전정신 및 자신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행된 전주시 75세 이상 전수조사(4만7340명)를 통한 필요도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독거여부와 노쇠, 우울, 인지 등 요인별 가중치 부여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 및 향후 전주시 돌봄정책 구축에 필요한 지역 특성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박은주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통합돌봄 사업은 초고령 사회 돌봄 대응을 위해 전주시가 선택한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아동 · 청소년 마음건강 돌본다

전주시보건소 ·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일상 회복을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과 김보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2일부터 올 12월까지 전주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알렸다.

보건소는 아동·청소년 개인과 10인 이하 소규모 그룹, 학교·기관 등 대규모 집단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대인관계 향상 '함께 나누미', 자존감 증진 '자존감 키우미', 인지행동 '생각 바꾸미', 정서관리 '감정 다루미' 등 4분야에 대한, 분야별 8회기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비췄다.

여기에 보건소는 새 학기를 맞아 아동·청소년들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도 했다.

서비스를 원하는 아동·청소년과 학교·기관 등은 전주시보건소(063-281-8554) 또는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273-6995~6)로 신청하면 된다.

김보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 정신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들과 학교, 여러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환경청, 새만금 에코에듀 환경교육 참여학교 모집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새만금 에코에듀' 환경교육 참여학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총 10개교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전북 소재 중학교에 한해 신청을 받고, 신청학교 중 환경동아리 활성화, 신청인원,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새만금 에코에듀 환경교육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해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및 물환경 보전 등에 대한 이론·체험활동(2차시)과 관내 환경자산과 연계한 현장학습(1일)으로 구성됐다. 교육 진행 후 환경골든벨(경진대회)을 개최하며, 우수학생에게는 환경부장관상(1명), 전북지방환경청장상(2명)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전북환경청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chse214@naver.com) 또는 팩스(0303-3440-4700)로 제출하면 된다. /임종은 기자

대규모 컨벤션 중심 마이스 복합 단지 개발 전문가 간담회 전주시가 2일 대규모 컨벤션 중심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포럼)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마이스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도전과 지역상생협업,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지난해 말 수익률 -8.22% 악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90조5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2021년 기준 948조7000억 원 보다 58조2000억 원이 적은 적립금을 나타낸 것이다.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에서는 국내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채권5.56%, 해외채권 4.91%, 대체투자 8.94%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내 및 해외주식은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 기조 및 전쟁 장기화로 국내·외 증시불안 요인이 지속돼 운용자산의 평가가치가 하락했다"고 해석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새로운 출발 '최선' … 1분기 운영협의회 가져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이연상)에서 '2023년도 1분기 운영협의회'가 개최됐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운영협의회에는 이연상 센터장, 이순태 나누는사람들 대표이사 외 15명이 참석했다.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전주시로부터 노인취업지원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며, 지난해 12월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로 위탁법인이 변경되어 올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어르신 능력개발의 산물!'을 목표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설계라는 비젼을 제시하며 '노인취업 원스톱 서비스기관 확립, 전주시 노인일자리정책의 연구, 실무 네트워크,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영역발굴' 등 3년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주요 전략과제로는 '전문직종 교육 통한 취업 지원 및 소규모 창업 교육,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강좌 사이트 구축, 전주시노인일자리 선도모델 시범사업 운영 및 제언, 전주시노인일자리 세미나 및 정책포럼' 등 교육에서 사후관리까지 종합창구의 역할을 위한 수행하기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연상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장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신중년과 노인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직업을 개발·보급토록 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소통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전주시 완산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완산구가 오는 30일까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는 완산구청의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들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는 대성1지구(3.3.대성동마을회관), 동완산2지구(3.8.새뜰마을사업), 동서학1지구(3.10.국립무형유산원)에 따라 진행되며,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 절차 및 주요 문의사항 답변 방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완산구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디지털 시대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등 오래된 숙원들이 해결될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